

장춘 30 만평방미터 '빙설운동락원' 곧 오픈

—전국대중빙설시즌 주회장 '사계남하' 건설현장 탐방



제 12 회 전국대중빙설시즌 주회장으로 선정된 장춘 '사계남하'(四季南河) 건설현장이 배일을 벗었다. 30만 평방미터 규모의 빙설운동락원(冰雪运动乐园)에서 스포츠 경기, 문화창의력, 도시생활이 조화롭게 융합된 동계 스포츠의 성대한 축제가 곧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사계남하' '장춘분설카니발'이 27 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12월 19일, 기자의 현장 탐방에 의하면 거대한 눈썰매 슬라이드가 기본 형태를 갖추고 분설성(粉雪城堡)이 우뚝 솟아있는가 하면 270여개의 에그지(蛋仔) 눈조각(雪雕)과 분

설조각이 장인들의 손길에 의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단지내 곳곳은 빙설시절 건설로 활기가 차넘치고 있었다.

길림중경문화관광발전유한회사(中庆文旅) 해설원 리장우는 "단지 내에 조성된 눈의 총량은 21만 3,000 톤방미터에 이르며 얼음판 조성 면적은 4만평방미터로 국내 유일무이의 스포츠 빙설 테마파크"라고 설명했다.

기존 빙설 행사의 단일성에서 벗어나 사계남하는 상업, 무대, 오락, 스포츠 네가지 기능구역을 기반으로 관람, 참가, 눈놀이, 민속, 휴식, 식음료, 문화가 융합된 복합 체험 공간을

구축했다. 대중빙설시즌 개막일부터 2026년 2월말까지 70여개의 빙설 경기와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며 전국 크로스컨트리 스키(越野滑雪) 경기, 빙설 자동차 랠리(冰雪汽车拉力赛)와 같은 전문 경기부터 눈발 축구, 얼음 우룽주(龙舟), 컬링(冰壶)과 같은 대중 참여 프로그램까지 모든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올림픽 챔피언들의 참여는 빙설축전에 전문성을 더해준다. 이번 대중빙설시즌 전담반 책임자 왕길은 "우리는 길림성 출신의 올림픽 챔피언을 초청하여 개막식을 진행하고 스케트

및 스키 강습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최고의 빙설 스포츠 선수들의 현장 지도를 통해 일반 관광객들도 빙설 스포츠의 전문적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그지파티'(蛋仔派对)와 협업하여 조성한 IP 주제 놀이원, 길이 88미터, 너비 25미터, 높이 40미터의 분설성 빛쇼(光影秀)는 현대적 창의성과 빙설경관의 융합으로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현대적 요소외에도 진한 동북지방 특유의 정취 또한 기대를 모은다. '남하삼촌'(南河三村)에는 10개의 길림성 고품질 인삼 기업들이 입점하여 특산품을 선보이며 '잔치상'(吃大席), 전통 결혼식 공연, 양걸(秧歌) 민속춤 체험 등 민속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이 관동(关东) 문화의 생생한 매력에 몰입하게 한다. 주목할 점은 '사계남하'가 혁신적으로 조성한 도시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랙인데 스키운동이 도시 외곽(远郊) 스키장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집앞에서도 마음껏 스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빙설 스포츠 도시 진입'(冰雪运动进城市)을 실현했다.

이제 빙설은 더 이상 추위의 대명사가 아닌, 기쁨과 활력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계남하'는 전문적인 경기와 대중적인 체험이 어우러지고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창의성이 공존한다. 온 국민을 위한 진정한 빙설 축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김명준 주동 기자

길림성, 량식생산능력 안정적 향상

길림성은 '량식생산 기반 확보' 및 '기술을 통한 량식생산' 전략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량식 안전과 경작지 보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억근 량식' 생산능력 건설 프로젝트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네가지 우수 한 융합 발전을 심화시켜 량식 종합 생산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올해 우리 성의 량식 총생산량은 871억 6,000만근에 달해 5년 연속 800억근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무당 990.8근, 파종면적은 8,796만 9,000 무로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파종면적에서 '세가지 증가'를 실현했다.

데이터는 우리 성의 량식 증산이 '면적 확장'에서 '기술 주도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농업 발전의 핵심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다. 량식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국 평균 수준인 무당 798.2근보다 192.6근 높아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하며 전국 평균의 2.2배에 달했다. 이런 우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전국 최상위권 총생산 규모를 뒤편하며 '작은 면적에서 높은 생산량'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스마트 농업의 심층적인 융합과 농업과학기술 지원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훈춘종합보세구 키크랩 향향으로 직향



일선 훈춘종합보세구 키크랩 '보세+중계(转口)' 업무 개통식이 개최된 가운데 키크랩이 해남항공 HU7915 '장춘-향향' 항공편으로 향향에 도착했다.

이번에 수송된 로씨야 수입 붉은 키크랩은 훈춘을 거쳐 장춘에 보내졌으며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운항하는 직항로선의 우세에 의탁해 4시간 55분 만에 향향에 도착했다.

이번 키크랩의 향향 '첫 비행'을 위해 여러 지역, 여러 단위에서 협력했다. 해남항공 전문팀은 화물칸의 온도 조절을 꼼꼼하게 확인했고 훈춘과 장춘 세관은 감독관리 모식을 혁신하고 '록색통로'를 개척해 신속한 검사, 통관을 실현했으며 장춘공항 지면보장부문은 적재 과정을 최적화하고 고능률적으로 지면 중계 운송을 완료하여 원활히 연결되는 보장 사슬을 형성했다.

이전에는 경외에서 구매하여 고객에게 운송했는데 지금은 중국 경내에 수입한 후 '보세+중계' 모식을 통해 직접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어 전반 운송 시효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절감되었다. 이 업무가 개통된 후 수입 키크랩은 향향, 대만 및 동남아 등지가 판매된다."며 "이런 키크랩 판매 모식은 중국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수 있다."고 소개했다.

향향에서 보세구에 도착한 후 경내 기타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다른 국가 혹은 지역으로 운송 판매되는 무역 방식이다. 업무의 핵심은 보세구 경내 관의 특수정책을 이용해 화물의 립시 보관, 중계 및 재수출을 실현하는 것이다.

길림성은 량식생산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9,000만 무 이상의 량식 파종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봄철 농사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여 모종이 고르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재배 구조를 최적화하여 신선한 옥수수 과 감자 등 고수의 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농민 소득 증가를 지원하고 있다. '네가지 우수, 한가지 스마트' 농업의 융합을 심화하여 고수 확량, 고품질 품종 및 고효율 기술을 보급하고 중서부지역은 '물비로 일체화+밀식(密植)' 기술 적용 면적을 확대하고 중서부지역은 '물비로 일체화+밀식(密植)' 기술 적용 면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량식 재배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디지털 감독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량식 재배 의욕을 높이고 재배 방지 및 감축을 완비하며 농업 프로젝트를 계획 및 비축하는 동시에 2026년까지 '가뭄 시 관개 가능, 홍수 시 배수 가능'의 고표준 농지를 1,000만 무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길림성 전체의 옥수수와 벼 시장이 각각 비교적 양호한바 매년 량식생산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따라서 2026년까지 량식 총생산량을 900억근 이상으로 끌어올려 전국 량식 풍작에 대한 길림성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길림일보

올해 빙설경제 관련 기업 2,296 개 등록... 9.1% 증가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빙설경제 꾸준히 활기 방출

우리 나라 대부분 지역이 새로운 빙설 시즌에 돌입하면서 '빙설경제'가 들썩고 있다.

'취날려행넷'의 통계에 따르면 빙설 방학 기간 신강과 길림성의 관광지 입장권 예매량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앞서 2024년-2025년 빙설 시즌 전국의 스키장 소비 금액은 786억 1,3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스키장을 중심으로 반경 2키로미터 지역의 소비 금액이 27.97% 상승하는 등 주변 소매, 판매, 교통, 외식 등 분야의 동반성장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빙설 시즌을 맞으며 다수의 북방 도시는 규모 확대, 질 향상 등을 통해 빙설자원 잠재력 발굴에 힘쓰고 있다. 길림시에 위치한 중국려행 송화호

리조트는 올해 15만평방미터 규모의 특색구역을 증설해 50여회의 경기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리조트 시장마케팅 총감독 황종열은 "예매 규모가 이미 1억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할빈시마달(马迭尔) 문화관광투자기획 역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질 향상에 더 주력하고 있다. 그룹 부사장 허빙은 "빙설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에어돔, 실원온천호텔 등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빙설 시즌에는 빙설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제1회 흑룡강성 빙설 스포츠 슈퍼리그'가 정식 개막했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로 '대중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빙설 시즌 성급단

위 종합 경기로 성·시·현 지역을 아우르는 대진표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흑룡강성체육국 국장 왕원우는 "빙설 슈퍼리그와 더불어 '경기' 따라 떠나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나라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빙설경제' 발전에 힘을 실어주면서 남부지역에서도 날이 늘어나는 실내 스키장을 기반으로 빙설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둥성빙설스포츠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광둥성 소재 실내 빙설 스포츠 시설은 25곳에 달하고 빙설 스포츠 참여자수는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 정식 개장한 심수·전해 빙설세계의 총투자액은 296억 원 이상으로 일평균 5,000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

곳을 찾고 있다.

우리 나라의 빙설산업사슬은 빙설 자원 개발, 장비 생산의 승격, 빙설 서비스 및 운영 발전, 빙설 소비 및 파생 경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며 완전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기업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올해 우리 나라에 등록된 빙설경제 관련 기업은 2,296 개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어난 규모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 승격, 산업 융합, 정책 지원 등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빙설경제 활기가 지속적으로 방출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이미 소비진작, 지역 고품질 발전 촉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화사

▶ 1면에서

안도현문화관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학춤을 비롯해 농악무, 탈춤 등 다양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을 활발히 전수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안도현문화관에서 학춤을 배운 젊은이는 40여명, 이들은 전통을 배우는 한편 현대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접목하는 것을 통해 현대 관람객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안도현문화관은 최근 몇년간 학춤, 아박춤 등 15가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가무극(장백산아리랑)을 창작하는 등 전통 예술이 현대생활과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민족 국가에서 전통 예술이 창의적으로 변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며 문화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장춘시조선족중요예술관 전임 관장 황철월은 "조선족 무용은 '호흡과 동작의 조화'라는 예술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다민족

예술의 정수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문화유산 개념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간 이해와 통합을 촉진하는 살아있는 예술 형식"이라고 말했다.

무용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이야기

2025년 11월, 해남 만녕의 은빛 백사장 옆에서 한파의 '철새' 로인들이 조선족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맨앞에서 이들을 이끄는 최선자는 퇴직한 조선족 무용수로 그녀는 이제 이곳의 특별한 '문화사절'이 되었다. 그녀는 한족, 만족, 몽골족 등 다민족 무용애호가 100여명을 모아 '신주반도조선족무용단'을 내오고 3년 연속 당시 사회구역의 음력설야회 무대에 올라 장고춤, 부채춤, 바구니춤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예전에는 조선족들이 너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직접 배워보니 많은 동작이 다른 민족 춤과 서로 통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긴, 우리는 원래부터 같은 땅에서 자랐고 같은 대가정에서 살았으니까요." 냥파 출신의 단원이 소감을 밝혔다.

이 무용단은 현지에서 공연으로 호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원들도 스스로 문화 전파의 '씨앗'이 되어 가고 있다.

중경 출신의 한 단원은 고향에 돌아가 3년 연속 지역사회 행사에서 조선족춤을 공연했고 북경 출신의 한 단원은 '이웃의 날'과 같은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조선족춤을 알렸다.

장춘로년대학의 조선족 교사 백향춘이 지도하는 다민족 무용단 또한 꾸준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9명으로 구성된 이 무용단에는 한족과 회족 학생 16명이 포함되었다. 그들이 선보인 작품 <장고소리 당의 은혜 노래하네>(长鼓声声颂党恩)는 2024년 10월 24일 양주에서 열린 전국 로년대학 문예공연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다.

백향춘은 "이 작품은 흥색가요를 음악에 담아 전통 민속예술과 애국 정서를 조화롭게 표현했다. 힘찬 북소리는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당을 따르는 확고한 발걸음을 상징하며 아름다운 춤사위는 민족문화와 중화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 또한 조국에 대한 여러 민족 인민들의 깊은 사랑과 미래를 향한 열망을 표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연은 다민족 문화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문화적 역할을 생성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조선족 무용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민족이 협력하며 소통하는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 꽃피는 민족문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플랫폼

의 발전으로 조선족 무용은 현재 해외로 넘어 더욱 쉽고 자유롭게 확장되고 있다. 짧은 동영상은 조화롭게 표현했다. 힘찬 북소리는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당을 따르는 확고한 발걸음을 상징하며 아름다운 춤사위는 민족문화와 중화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 또한 조국에 대한 여러 민족 인민들의 깊은 사랑과 미래를 향한 열망을 표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연은 다민족 문화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문화적 역할을 생성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조선족 무용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민족이 협력하며 소통하는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은 단순한 춤동작의 강의를 넘어 조선족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로 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조선족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 직접 연면을 찾아가고 싶어한다. 춤은 이제 단순

한 취미를 넘어 더 깊은 문화 탐방과 민족간 교류와 융합의 다리로 되고 있다." 사람은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과학기술은 문화 전파의 속도와 범위를 가속화하며 무용을 매개로 한 심층적인 문화 이해와 정서적 공감대까지 형성하고 있다. 화면 속 춤사위는 이렇게 디지털 공간을 벗어나와 현실 속 문화교류의 생동감 있는 연결고리로 되고 있다.

민간에 깊이 뿌리내리고 시대와 호흡하는 이러한 예술 실천은 조선족 무용으로 하여금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과 민족단결진보에 지속적으로 따뜻한 동력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조선족 무용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박명화 주동 김령 기자